

## 제9장 — 금이 간 평온

왕궁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래서—금이 더 잘 들렸다.

회랑의 바닥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는 변함이  
없고,

아침 식탁의 빵은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수로 위로 드리우는 햇빛은 여전히 얇게 부  
서져 내렸다.

그런데도 당신은 안다. 평온함은 언제나 가  
장 먼저 “사람의 입”에서 금이 나기 시작한  
다는 것을.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  
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은 소문이  
되어 조용히 퍼진다.

당신이 숙소 문을 열고 복도에 나섰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소리는 작았다. 일부러 작게 만든 소리였다.  
듣히지 않게 하려는 소리는 오히려 더 또렷  
하게 들린다.

“...철수했다며.”

“살아서 돌아온 게 다행이지.”

“그런데... 그때 분위기 들었냐? 뭔가 이상했다던데.”

대화는 끝났다. 당신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급히 목을 가다듬거나, 갑자기 바빠진 척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반응은 익숙했다. 뒷골목에서도 수없이 봤다.

사람들은 ‘모르는 척’으로 자신을 지킨다.

그리고 그 모르는 척은 때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나쳤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생존 기술이다.

하지만 당신의 안쪽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더 깊어졌다.

이 분노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비난하는 목소리를 향해서도 아니고,  
수군거림을 향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실패한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오늘도 훈련장으로 향하  
게 만들었다.

---

훈련장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습기가 남아  
있었다.

돌과 흙이 섞인 바닥은 밤사이 축축해져 있  
어 발이 조금만 삐끗해도 미끄러질 수 있었  
다.

당신은 일부러 그 축축함을 느끼며 발을 디  
뒀다. 불리한 조건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게 자기 별인지, 자기 단련인지—당신은 구  
분하지 않았다. 구분하려고 들면 마음이 흔  
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손이 흔들린다.

당신은 칼을 쥐었다.

잡지 않았다.

쥐었다.

그리고 움직였다.

칼을 휘두르는 각도, 보폭, 무게 중심.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반복했다.

하지만 오늘은... 반복이 아니라 '밀어붙임'에 가까웠다.

몸이 먼저 속도를 올렸고, 숨이 따라오지 못해 목이 뜨겁게 말랐다. 손바닥 굳은살이 자루를 문지르며 따끔거렸고, 무릎의 상처가 땀에 젖어 조금씩 벌어졌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실패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았다.

“멈춰.”

교관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 번 더 칼을 내질렀다.

“멈추라고.”

이번엔 더 단단한 목소리였다.

당신의 팔이 끝까지 뻗은 채로 멈췄다.

숨이 거칠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교관이 다가왔다.

그의 눈은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손목을 보고 있었다.

칼자루를 쥐는 손의 각도, 손목의 미세한 균음, 팔의 떨림.

잠시 후, 그는 아주 짧게 말했다.

“변했군.”

그 단어 하나가, 뺏속까지 파고들었다.

교관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당신의 칼을 손끝으로 툭 쳤다. 칼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니. 글러먹었군.”

그 말은 욕보다 더 날카로웠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교관은 낮게 이어 말했다.

“분노를 칼에 실으면, 칼은 빨라진다.”

“하지만 빨라진 칼은... 너를 배신한다.”

당신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교관은 당신의 손목을 잡았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 당신의 손목을 아래로 눌러 힘을 풀게 만들었다.

“잡지 마.”

그는 말했다.

“쥐어.”

당신은 그 말이 이미 몸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전혀 다르게 들렸다. 그 대사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경고였다. 분노가 쥐는 힘까지 바꾸고 있다는 경고.

교관이 짧게 손을 떼며 말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마.”

“그건 못 한다.”

“대신—분노를 ‘밑으로’ 내려.”

그는 자신의 배 아래를 툭 쳤다.

“가슴에 두면 숨이 흔들린다. 숨이 흔들리면, 손이 흔들린다.”

“배에 두면... 몸이 버틴다.”

당신은 숨을 들이켰다.

교관이 덧붙였다.

“칼을 질 때, 너 자신을 먼저 쥐어.”

그 말이,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제대로 배우는 훈련 같았다.

---

정오 무렵, 왕궁은 다시 평온한 얼굴을 했다.

수로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어인들은 물자를 옮기며 낮은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아이들은 물가의 얇은 곳에서 발을 담그고 웃었다.

인어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며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욱 이상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비껴간다는 것이.

당신이 수로 근처를 지나갈 때, 인어 하나가 시선을 먼저 내렸다.

아주 잠깐. 인간이라면 ‘예의’라고 해석했을 지도 모르는 짧은 동작. 하지만 인어는 예의를 위해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인어는 보통, 보고 싶은 것은 본다. 숨기지 않는다.  
그 짧은 피함이 당신의 발목을 잡았다.

그때, 아주 멀리서 노래가 들렸다.  
낮은 음율, 물결 같은 운율.  
말이 아니라 노래였고, 노래인데도 뜻이 있었다.  
인어의 노래는 ‘설명’이 아니라 ‘전달’이다.  
한 번 흘려보내면 다시는 같은 의미로 들리지 않는다.

노래는 당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을 향해 불리고 있었다.

“바다의 칼은... 깊이 잠기고,”

“깊이 잠긴 칼은... 빛을 두려워하네.”

“달의 손이... 물결을 뒤집을 때,”

“너의 그림자... 너의 뒤를 문다.”

짧은 구절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길게 남는 운율.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대신, 노래가 끝나는 지점을 등으로 느끼며 걸었다.

바다의 존재들이 경고할 때는 대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유를 물을 수 없었다.

물으면, 그 경고가 현실이 될 것 같았다.

---

리네는 오후가 조금 기울 무렵 당신을 불렀다.

“잠깐... 내려갈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짧고, 여백이 있고, 조용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 속에 아주 미세한 “사람”이 섞여 있었다.

왕궁 밖, 교역 도시 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평소보다 밝았다.

전쟁이 아직 오지 않은 곳의 밝음. 상인들은 웃고 있었고, 어인들은 물자를 나르며 손을 흔들었고,

어떤 인어는 시장의 얇은 수로에 앉아 젖은 손끝으로 과일을 만지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인간은 과일을 손으로 고르고, 인어는 냄새로 고른다. 그 차이는 작지만 확실했다.

리네는 그들 사이를 지나며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들어 인사했다. 왕궁에서의 리네와 달랐다.

더 단정하되, 더 가볍고, 더 가까웠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낮설어 당신은 잠깐 속도를 늦췄다.

리네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무리했어?”

그녀가 물었다.

그 질문은 오늘도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질문에서 무언가를 들었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무리했을 것 같다’는 직감.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자, 리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는 얼굴은 아니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아주 작게 덧붙였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천천히.”

그 말은 정말 작았다.

거의 소녀처럼 들릴 만큼.

리네는 그 말이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걸 깨달았는지,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다. 다시 단호한 얼굴.

다시 공주의 얼굴.

그 과정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들켰다.  
당신은 그 작은 들킴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  
질이게 한다는 걸 깨달았다.  
꽂냥거림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숨겨둔 진심  
이 아주 얇게 비친 느낌. 그래서 더 강했다.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물가 옆이라 바닥은 약간 축축했고, 창문으  
로 들어오는 바람에는 소금기가 섞여 있었  
다. 평범한 메뉴-생선 스투, 빵, 따뜻한 차.  
왕궁의 식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  
긴 왕궁이 아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옆 테이블에서 소리를 낮춰  
흥정을 하고 있었다.  
그 소음 속에서, 리네는 잠깐 숨을 놓는 것  
처럼 보였다.

“여기… 좋아.”

짧은 말.

그리고 아주 잠깐,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당신은 그걸 보면서 죄책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이런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 좋으면서도,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 순간을 더 부끄럽게 만든다.

리네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알아.”

당신의 목소리는 낮았다.

리네는 잠깐 당신을 바라보다가, 그녀답게 간결하게 말했다.

“다음은… 우리가 먼저 움직여.”

그 말은 격려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격려가 더 무거웠다.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리네는 당신 혼자 책임지게 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 당신의 분노를 더 깊게 만든다.  
지켜야 할 사람이 늘어나니까.

식사를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 리네  
는 잠깐 왕성 쪽으로 동선을 바꿨다.  
왕궁의 높은 회랑을 천천히 걷는 동안, 아래  
에서는 인어와 어인이 어울려 일상을 이어가  
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짐을 옮겼고, 아  
이들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 배를  
따라 달리며 소리 없이 환호했다.

리네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게… 내가 지키는 거야.”  
그 말은 여왕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 아주 작은 목소리가 섞였다.

“...너도, 여기에 있잖아.”

아주 작게.

자기도 모르게 새어 나온 것처럼.

리네는 곧바로 침묵했다.

말을 더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방금 새어 나온 말을 더 크게 만들었다.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이 얇은 균형이 깨질 것 같았다.

---

그리고 그날 밤, 리네는 혼자 움직였다.

회의실에서 단원들과 나눈 보고 내용을 다시 펼쳐놓고,

기록관의 분석 문서와 외교문서의 암호 구조를 하나씩 대조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눈은 피곤해도 단단했다. 이건 여왕의 작업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손.

하지만 책임은 때때로, 사람을 고립시킨다.

리네는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다.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당신에게도, 기사단장에게도, 기록관에게도.

그녀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생각해야만 했다.

지금 왕궁은 평온하다.

그 평온을 깨뜨리는 건 여왕의 죄다.

그래서 여왕은, 평온을 깨지 않기 위해 혼자  
서 불을 끄려 한다.

리네는 창가로 갔다.

수로 아래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크게 들렸다.

‘늦었다’는 말이 떠올랐다.

상대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

리네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임무의 정보를, 당분간 당신에게도 공개하지 않겠다.

당신은 이미 분노가 깊다.

이미 자신을 태우고 있다.

그 상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당신은 더 빨리 망가질 것이다.

리네는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이 위험하다는 걸, 그녀는 아직 모른다.

리네는 외교문서의 암호 구조를 다시 읽었다.

달의 왕국은 “예지”를 이용한다.

그들은 미래를 너무 많이 본다.

미래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은, 현재를 조작하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답은 단순하다.

예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면 된다.

리네는 지도 위에 손끝을 올렸다.

왕국의 외곽, 바다가 닿는 경계선, 물길이 얽  
아지는 지점.

달빛이 비치기 쉬운 고지대가 아니라,

바다 안개가 짙게 깔리는 저지대.

그곳이라면.

그곳이라면, 달의 왕국이 한 발 늦어질 수  
있다.

리네는 그 판단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문제는—

확신이 생길수록, 그녀는 더더욱 사람을 부  
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네는 서류를 정리하며 입술을 아주 짧게  
깨물었다.

그 모습은 여왕이 아니라, 잠깐 소녀 같았다.  
그리고 그 소녀 같은 흔들림이 사라지기 전  
에,

그녀는 다시 여왕의 얼굴로 돌아갔다.

“내가 해야 해.”

그 말이, 아주 조용히 방 안에 떨어졌다.

바다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달빛은 아직 왕궁 안쪽까지 깊게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리네의 판단은 이미, 아주 작은 균열  
을 만들고 있었다.

균열은 소리 없이 자란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자란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을 무너뜨린다.